

“10년 만의 바다 구경... 고마워요, 사랑의 택시”

광주 장애인들 특별한 여행

택시운전자 봉사단 20명
장애인 20명과 부안 여행
거동 불편 홀로 거주 대부분
좋은 추억 쌓고 희망 듬뿍

“10여 년 만에 바다를 봤어요.”
광산구장애인협회와 광주시대상회 장애인무료차량봉사대가 지역 중증장애인들에게 바다를 선물했다. 몸이 불편해 수십 년간 여행을 하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한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9일 광산구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20여 명의 중증장애인과 광주광역시대상회 장애인무료차량봉사대 소속 20여 명의 개인택시기사들과 이 함께 나들이를 갔다.
전북 군산과 부안 일대를 둘러보는 이번 행사에서 장애인과 봉사자들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보호자, 가족, 봉사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군산의 새만금 방조제를 걸었다.



지난 23일 부안 격포항에서 택시 자원봉사자들과 중증장애인들이 서해를 바라보며 여정을 즐기고 있다. <광산구장애인협회 제공>

확 트인 서해바다와 새만금 방조제의 구경을 마친 이들은 점심 식사 후 격포항 등 부안 일대의 휴양림을 찾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참가자들은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홀로 지내는 중증장애인이다.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취약한 가정의 중증장애

인, 거동이 불편한 성인 중증장애인도 동행했다.
광산구장애인협회는 장애정도,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참가 대상자를 선발했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 15명과 목발과 보조기 등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5명을 선정했다.

한 참가자는 “10여 년 만에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며 “몸이 불편하지만 언젠가는 혼자서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광산구장애인협회 이혁 회장은 “뜻이 있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

다”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면서 “더 많은 중증장애인과 함께 삶에 대한 희망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중·장년 고독사 막기 위한 ‘말동무’ 생긴다

광주 동구 멘토단 260명, 위험군 지속 관리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중 50대 이하 사망자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중·장년 남성 단독거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자 광주 동구가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40~60대(1977~1997년생) 중·장년 독거 남성을 지원하는 ‘더트립동구 4060 위기 독거남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구는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회로부터 고립된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을 감안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수조사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260여 명의 멘토단을 구성해 4단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1단계는 대상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고위험군은 공무원, 사례관리사 등 전문가가 전담 관리에 나

서고 저위험군은 멘토단 중심의 민간자원과 연계해 필요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
2단계는 일자리, 주거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어 3단계는 사례회의 등을 거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4단계는 멘토단의 지속적인 돌봄 활동을 통해 대상자를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복귀시킨다는 복안이다.
동구는 멘토단 모집이 끝나는 이달 말께 멘토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중·장년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싹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5월 남구 주민들이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무진중학교에서 ‘사방팔방 걷기마당’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강을 돌보고 있다. <남구 제공>

광주 남구 “이웃과 걸으며 건강 챙기세요”

“주민들과 함께 걸으면서 건강 챙기세요.”
광주 남구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생활 속 걷기운동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사방팔방 걷기마당’ 프로그램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남구 대성초등학교에서 3개월 일정으로 기초체력을 다지는 파워 워킹과 율동 등을 결합한 ‘사방팔방 걷기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 모집은 9월1일까지이다.
‘사방팔방 걷기마당’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진행된다.
걷기 운동은 만큼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대성초교 인근에 사는 남구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관리실을 방문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체성분 검사를 받으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걷기운동의 경우 홀로 하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고, 하루 이를 미루다 보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사방팔방 걷기마당’ 프로그램은 일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이웃과 함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크고, 많은 사람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다음달부터 순환운동 프로그램, 만성질환자를 위한 소도구 운동 프로그램, 어르신 대상 기공 체조의 한방 침술 등 다채로운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는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062-607-6153)로 하면 된다. /김한영기자 young@

장애인 불편 체험하며 편견 깨기

광주 서구, 장애활동가 양성

광주 서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 ‘장애활동가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
29일 서구에 따르면 양성 과정은 다음달 21일부터 3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2주간은 광주 서구 롯데마트 월드컵 점 3층 교육장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기본과정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장애활동가를 양성하여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의 이해, ▲장애인인권,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체험 과정 등을 교육한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는 서구청에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장애활동가 양성과정이 끝나면 장애활동가 동아리를 구성해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장애활동가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소외받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방법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거나 거주지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및 기타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 장애인복지팀(062-360-7956)으로 하면 된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저소득층 아동가족 위한 야구관람·악기교실

광주 서구는 올 여름 무더위로 많이 지쳐있을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29일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0~12세 미만 저소득 아동의 신체·정서·행동 등에 대한 필수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드림스타트는 올해 ‘아이들에게 꿈자람 행복채움’이라는 목표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아이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체 취약아동이 참여하는 영양교육 캠프 등을 비롯하여 11종의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야구관람, 하모니카 교실 등 가족 간 소통하고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나 문의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360-7139)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지역 후원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할 것이다”며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기관 단체 개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난 20년간 1만2천명이 수강한 명강의

부동산 컨설팅과 실전경매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문)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평생교육공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 KBC-TV 아침머닝 생방송 출연, 건설부 장관과 세미나 토론 참여,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특강

지난 34년간 터득한 부동산컨설팅과 실전경매 노하우를 전수하며 지역 휘황희망사, 국가공인부동산컨설팅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집제 결성후 평생지도 합니다. (공무원, 교직원, 학생 할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정확하게 알아보고 성공전략강의”

장소	조선대 평생교육원 ☎ 230-7700	남부대 평생교육원 ☎ 970-0080	전남대 평생교육원 ☎ 530-3873~4
일시	매주(화요일) 주간: 3시~5시 야간: 7시~9시	매주(수요일) 야간: 7시~9시	매주(목요일) 야간: 7시~9시
수강료	20만원	20만원	20만원

부동산강의 및 컨설팅상담 010-5613-1808(정영수박사)

한마음 공인중개사

-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점, 삼거리 코너(뒷집 직업증), 매매 4억3천만원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무등산 총정사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앞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정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닝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